

한글날 573돌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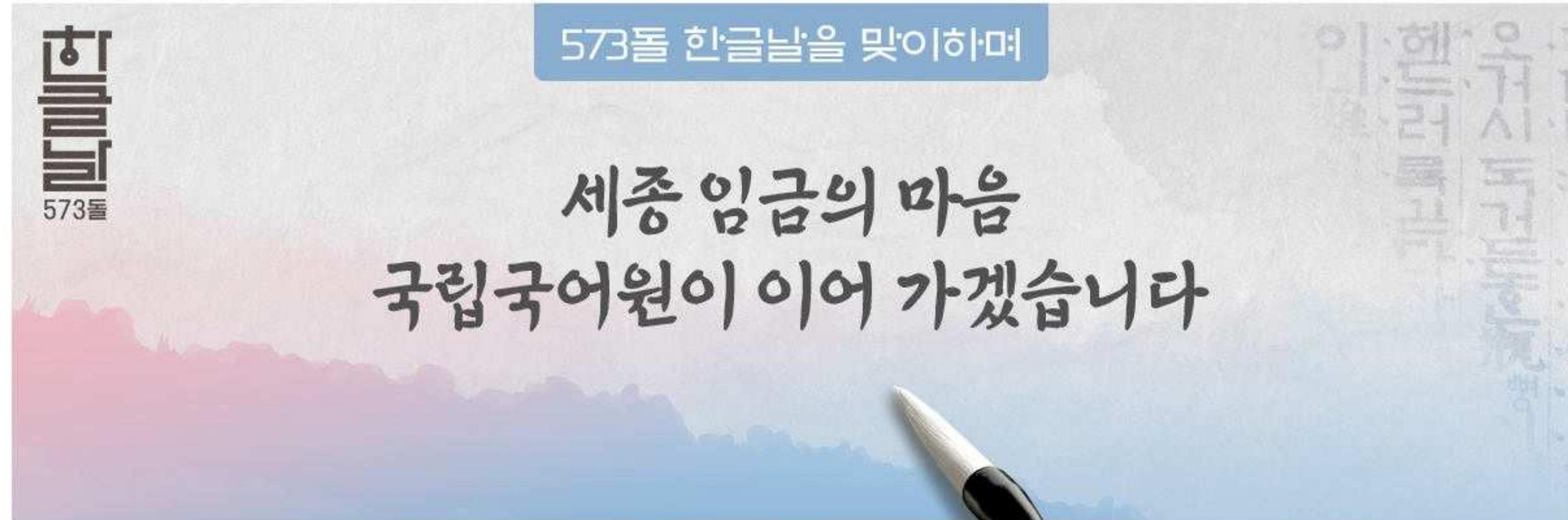
안녕! 한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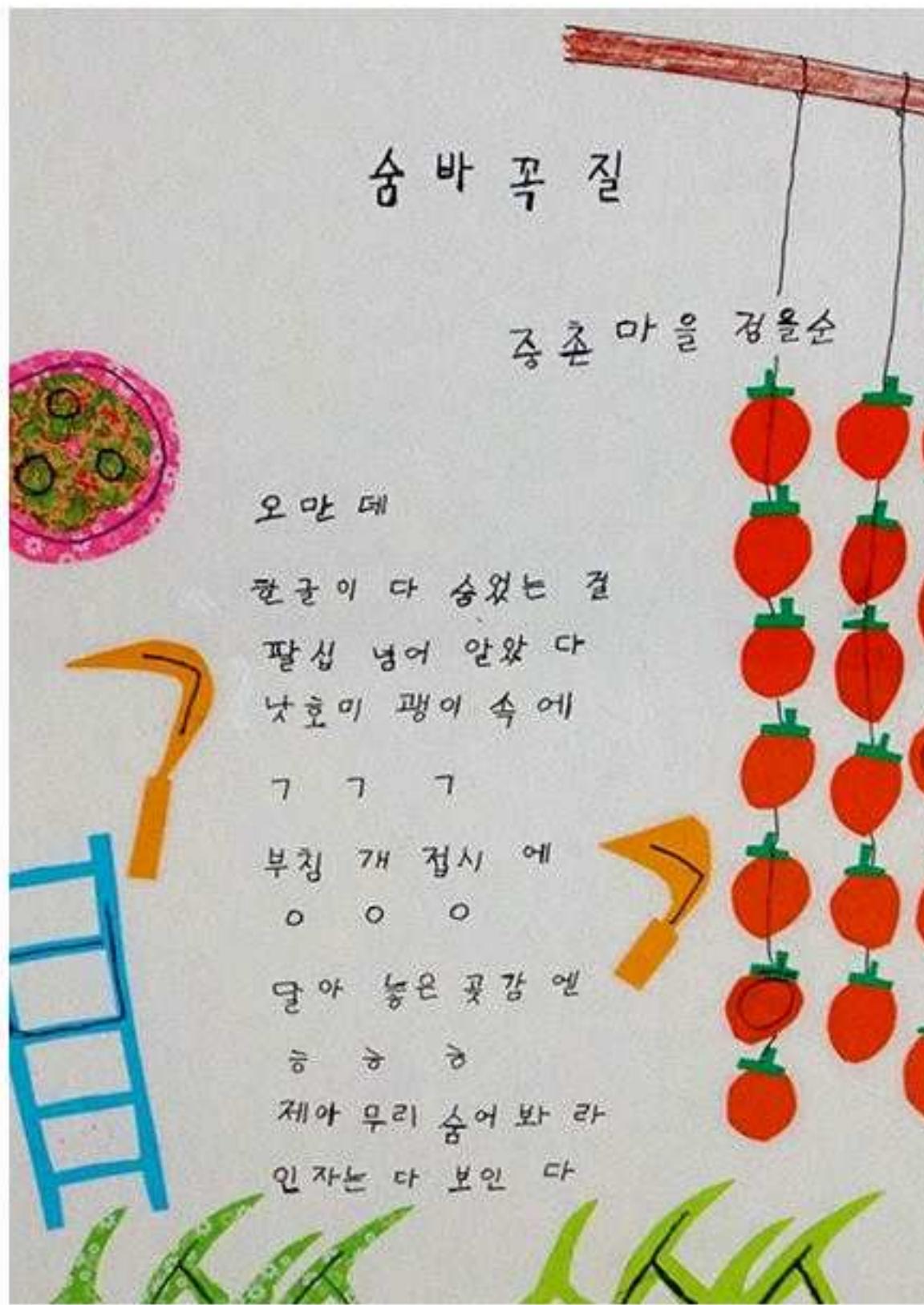
오늘의 발견

한글 탐구생활

반가운 우리말

2019년 10월 8일





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소강춘입니다.

573돌 한글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한글의 고마움을 되새겨 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그래서 지금도 한자를 빌려 쓰고 있다면 우리의 말글살이는 어떠할지 상상해 봅니다. 우리말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바람, 별,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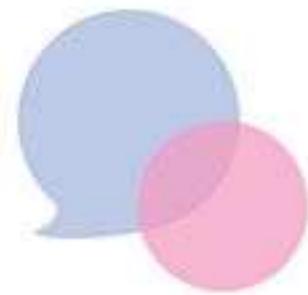
이런 예쁜 우리말을 한자로는 오롯이 적을 수가 없으니, 그 자리를 천(天), 풍(風), 성(星), 애(愛) 따위가 대신 차지하고 있겠지요. 하늘과 바람과 별을 사랑했던 윤동주도 오언절구 한시로 그 마음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까막눈으로 지내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이름 석 자를 쓰고, 서울 사는 손주에게 빼뚤빼뚤 서툰 글씨로 편지를 써 보내고는 평생의 한을 풀었다며 웃음 짓는 어느 할머니의 사연을 보면서, 세종 임금이 진정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백성을 위해, 세상의 지식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하고자 만든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그런 한글이 세상에 나온 지 593년이 지난 지금, 우리말은 아픕니다. 알아듣지 못할 외국어, 외계어가 넘쳐납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횡행합니다. 어느 때보다 한글 창제에 깃든 세종 임금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한글날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사진 제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글날 573돌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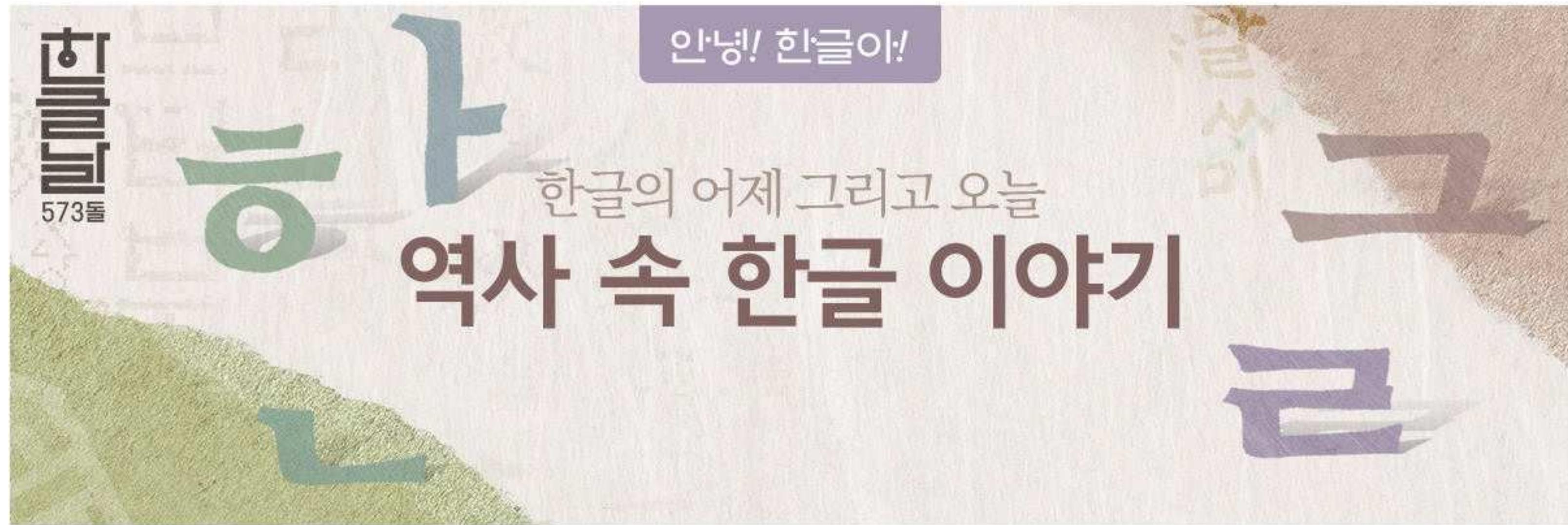
안녕! 한글아!

오늘의 발견

한글 탐구생활

반가운 우리말

2019년 10월 8일



숫자로 보는 오늘의 한글



우리나라 최초의 대사전 《큰사전》에
실린 올림말 수¹⁾

164,125개

1) 사전에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올림말 수

511,415개



개방형 웹 사전 《우리말샘》
총 올림말 수

1,108,6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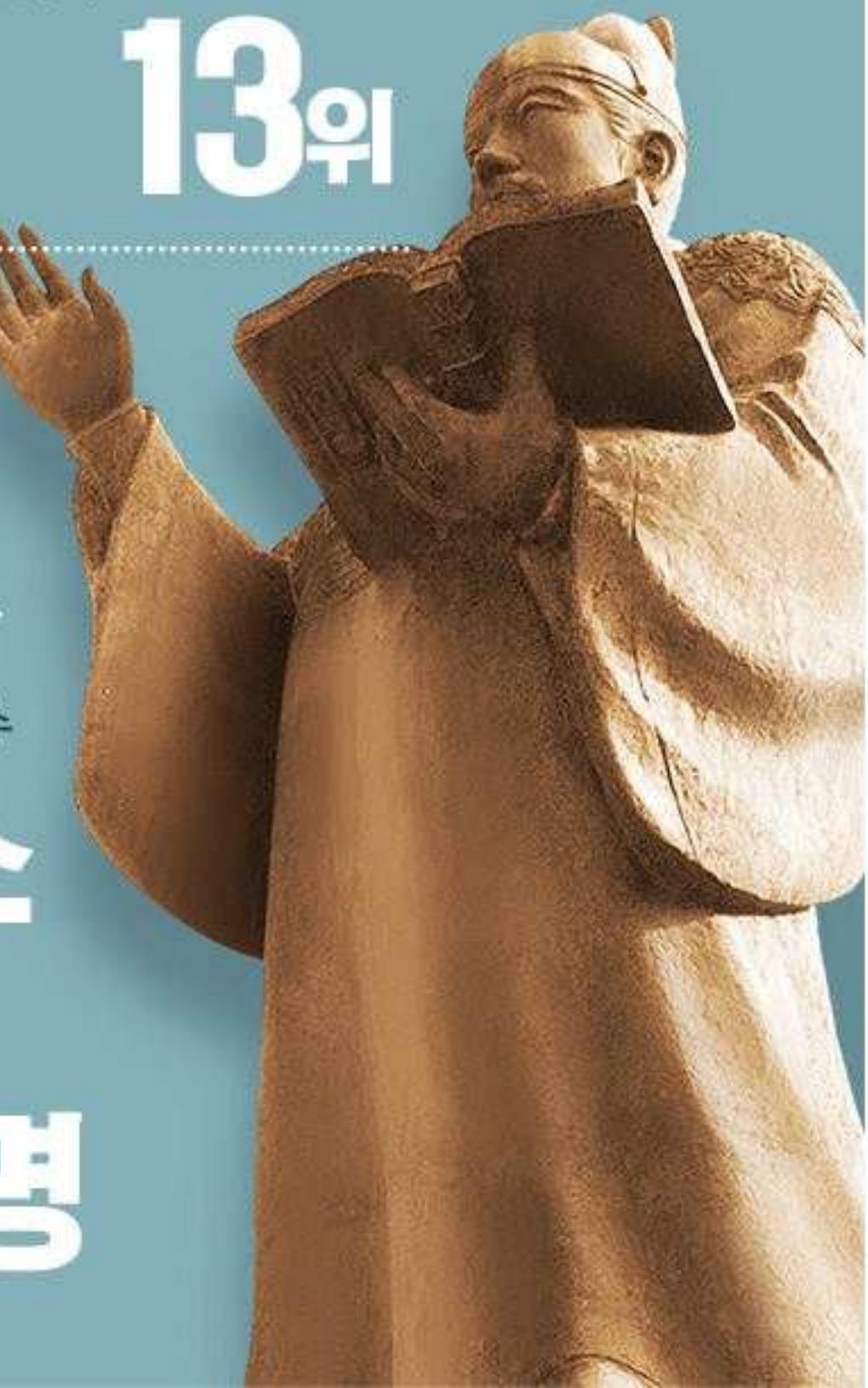
많이 쓰이는 세계 언어 순위 중
한국어의 위치

13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수

7,720만 명



세종학당이 설치된 나라 수

57개국

외국에 설치된 세종학당 수

172개소

세종학당 수강생 수

61,810명

한글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 세계에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항상 꽃길만 걸었을까요? 한글은 때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감수해야 했던 적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한글을 함께 살펴볼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

고유한 문자가 없어 한자의 음과 뜻으로 우리말을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담아 내지 못했고, 지식을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15세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창제되다

1443년

세종 25년: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언어생활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던 세종 임금의 애민정신이 깃든 훈민정음은 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완성되어 반포되었습니다.

1447년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지어졌습니다.
같은 해 훈민정음이 ‘이과’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과는 말단 행정 실무를 보던 ‘서리’를 뽑는 시험입니다.

1460년

세조 6년: 훈민정음이 ‘문과’ 과거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대부 양반 계층에도 훈민정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461년

‘간경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간경도감에서는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등을 비롯한 많은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풀어 간행했습니다.



16세기, 훈민정음, 수난을 겪고 다시 일어서다

1504년

연산군 10년: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훈민정음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여 연산군은 훈민정음의 교육 및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참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된 책도 모두 불태우게 했습니다.

1527년

한자 3,360자에 훈민정음으로 뜻과 음을 달아 놓은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가 발간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글 자모의 이름은 이 책에서 비롯합니다. 이 외에도 『주역언해』, 『가례언해』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훈민정음으로 발간됐습니다.

1583년

한자 입문서인 『천자문』을 훈민정음으로 뜻과 음을 단 『석봉천자문』이 간행되어, 훨씬 쉽게 한자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18세기, 훈민정음, 문학과 실용서로 백성의 삶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다

1613년

『동의보감』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640여 개의 향약명이 훈민정음으로 쓰여 있습니다.

1655년

농사 장려와 농사 기술을 다룬 『농가집성』이 간행되었습니다. 『농사직설』, 『권농문』, 『금양잡록』, 『사시찬요』를 한데 모아 놓은 것입니다.

1687년

정철의 『송강가사』가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가사 문학의 절정을 이룹니다.

1728년

김천택이 『청구영언』을 간행하였습니다. 당시 구전되던 시조 580수를 모아 문학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1776년

규장각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역대 임금의 글이나 훈민정음으로 쓴 문서와 편지 등을 보관하고, 많은 책을 편찬·인쇄·반포하였습니다.



19세기, 훈민정음, 국문이 되다

1824년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유희의 『언문지』가 나온 해입니다.

1880년

최초의 외국어 사전 『한불자전』이 출간되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갑오경장으로 훈민정음은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 ‘국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문서도 훈민정음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1896년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국문 전용·국문 띠어쓰기·쉬운 국어 쓰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훈민정음, 한글이 되다

1910년대

훈민정음이 ‘한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한’은 우리 겨레를 가리키는 ‘韓’ 외에 ‘大’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1926년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여 조선어연구회에서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였습니다.

1933년

조선어학회가 주도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1938년

일제는 학교에서의 한글 교육과 사용을 금지하고, 이어서 한글 서적 출판도 금지했습니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를 명확하게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던 분들이 투옥되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1945년

조선어연구회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각지에서 만여 명이 모여 기념식
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1947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조선말큰사전』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1949년에 제1권을 펴냈고, 1957년을 제6권을 펴내어 완간이 되었습니다.

1984년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가 개소했습니다.

1988년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이 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1991년

공식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1999년

표제어 50만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이 발간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인터넷 사전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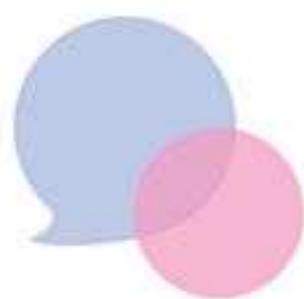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 국경일로 재승격되었고, 2012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한글날 큰잔치가 열립니다.

2014년

국립한글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가 차원에서 한글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한글을 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로 많은 국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립국어원에서 개방형 웹 사전인 ‘우리말샘’을 개통하였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 이용자 참여로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전입니다.



한글날 573돌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며
안녕! 한글아!

오늘의 발견

한글 탐구생활

반가운 우리말

2019년 10월 8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for Hangeul Day (573rd Anniversary). The main title is "다시 보는 한글" (Revisiting Hangeul) with the subtitle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the creation of Hangeul?). A large red play button icon is centered. On the left, there's a vertical logo for "한글날 573돌" and a small navigation bar with icons for home, search, and login. On the right, there's a vertical text "나랏말싸미" and a small navigation bar with icons for home, search, and login. The background has faint Korean characters.

<나랏말싸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뒷이야기를 담은 영화라서 관심을 끌었으나 크게 흥행은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영화는 훈민정음을 세종대왕과 신미대사가 함께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정말 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세종 친제설'의 동국대학교 김무봉 교수의 글과 '세종·신미 합작설'의 고려대학교 정광 교수의 글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A brown rectangular card with white text. It features a decorative border with traditional Korean characters. The text reads: "세종이 만들고 신미가 퍼뜨린 훈민정음" (Hangeul created by Sejong and spread by Simui) and "보러 가기" (Read more) with a right-pointing arrow. There are also small decorative elements at the top and bottom cor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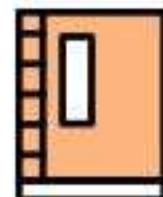
A green rectangular card with white text. It features a decorative border with traditional Korean characters. The text reads: "세종과 신미가 함께 만든 훈민정음" (Hangeul created by Sejong and Simui together) and "보러 가기" (Read more) with a right-pointing arrow. There are also small decorative elements at the top and bottom corners.

다시 ‘훈민정음’의 창제를 생각한다.

김무봉(동국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올 여름 우리나라의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작 중 하나를 들라고 하면, 단연 ‘나랏말싸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개봉이 되자마자 역사 왜곡의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단순하게 정리하면 영화는 영상과 음향에 의해 구성되고 현현되는 예술 작품이다. 그리고 작품의 기반은 창작이다. 따라서 역사물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술적 상상력을 빼곤하게 하는 일이 된다.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은 공부하는 이들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우리에게 역사에서 소재를 가져온 예술 작품의 작품성 추구와 상상력의 제한이라는 상충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겼다.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는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훈민정음의 창제와 관련된 사실 관계, 그리고 창제 이후의 정착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록’이나 ‘해례본’ 등의 공적인 자료에 의하면 영화와는 달리 신미대사(信眉大師)가 창제에 직접 관여했다는 기록은 없다. 물론 이는 기록을 보면 그대로 해석한 결과이고, 행간 너머의 그 무엇에 대한 추측은 논외로 한다. 그런데 불경의 언해 등 현전하는 정음 문헌들에 따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훈민정음의 정착 및 보급 과정에서 신미의 역할이 누구보다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실에 대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밝혀 나가고자 한다.



실록의 ‘친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신미가 창제에 관여했다는 기록은 없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적 기록에 의하면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가 훈민정음의 창제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은 없다. 다음에 제시하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가 그러하고, 『훈민정음 해례본』(1446년 간행)의 ‘정인지 서문’ 등이 그러하다. 특히 ‘실록’에서 친제(親制)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지었는데, ~~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이른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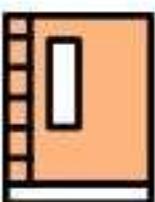
〈세종실록 102권 42장, 세종 25년(1443년) 12월 30庚戌條〉

계해년(癸亥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스물여덟 자를 창제하시고,

~~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癸亥冬 我殿下 創制正音二十八字 ~~ 名曰訓民正音)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간행된 정음 문헌들을 보면 곳곳에서 신미를 마주하게 된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 간행된 정음 문헌의 대부분이 불교 관련 서책이라는 점과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간행된 『석보상절』(1447년 간행)을 비롯하여 15세기에 간행된 정음 문헌 40여 종류 중 30종 가까이가 불교 관련 문헌이다. 양으로 치면 80%나 될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미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로 미루어 신미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훈민정음이 우리 문자로 자리를 잡아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때 간행된 불서의 대부분은 한문 경전을 국어로 옮긴 이른바 언해 불경들이다.



신미, 불경의 국어역으로 훈민정음의 보급에 힘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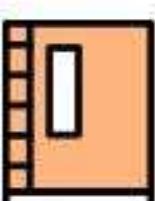
신미가 불경의 국어역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 주는 기록이 있다. 활자본 『능엄경언해』(1461년) 권10 뒤쪽의 어제발(御製跋)에 있는 내용이다.

上이 입겨출 드르샤 慧覺尊者식 마기와시늘 ~~ 工曹參判臣韓繼禧 前尙州牧使臣金守溫은 翻譯 へ고
~~ 國韻 쓰고 慧覺尊者信眉 入選思智 學悅 學祖는 翻譯 正희온 後에 御覽 へ샤 一定커시늘 ~~ 御前에
翻譯 낚스오니라

〈능엄경언해 10권 어제발 3, 4장〉

이렇듯 언해본의 판밑 원고를 만들 때, 그 번역의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엄격했다. 원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한문 원문의 띄어 읽기 자리에 훈민정음으로 구결을 달는 일이다. 주상인 세조가 직접 구결을 달면, 신미가 구결이 달려 있는 문장을 확인한다. 그리고 모든 번역의 과정이 끝나고 『동국정운』에 근거하여 한자음을 달면 신미, 사지, 학열, 학조 등의 승려들이 잘못된 번역을 바로잡는다. 그런 후에 임금이 보고 번역을 확정한다. 세조가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달고 신미가 이를 확인하였다 는 사실은 신미가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선지식(善知識)임과 동시에 새로 창제한 문자 및 그 사용에 대한 이해 역시 높았다는 사실의 방증인 것이다.

이 외에도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459년 간행) 역기란(譯記欄)의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역해(譯解)’라는 기록 등이 보여 주듯, 그는 불서들의 언해에서 구결 작성자, 번역자 등으로 활동했다.



경전 보급을 위해 적극 활용된 훈민정음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경서가 아닌, 불교의 경전을 주로 간행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 이때 간행된 불교 경전의 대부분은 언해의 과정을 거쳐서 조성된 언해 불경들이다. ‘언해’는 한문 원문에 정음으로 구결을 단 후, 국어로 옮기는 형식이다. 결국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등장한 독특한 번역 양식이면서 인출 양식인 셈이다.

훈민정음의 창제와 동시에 한문 원전을 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해 주는 기록이 있다. 훈민정음이 『해례본』을 통해 알려지기 훨씬 전인 창제의 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실록의 기사가 그것이다. 세종이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에 대해 행한 답변(세종 26년, 1444년) 중 응교(應敎) 정창순(鄭昌孫)에게 하교한 말을 통해서이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들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라고 하였으나, … 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삼강행실』을 번역하여民間에 반포하면, ~~ (何必以諺文譯之, 而後人皆效之)… 前此 上敎昌孫曰 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 頒諸民間”
〈세종실록 103권 21장, 세종 26년(1444년) 2월 20일 庚子條〉

위의 기사는 세종이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간행을 명했던 『삼강행실(三綱行實)』의 언해와 관련된 것이다. 세종을 비롯한 왕실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후 사용 방안에 대해 적잖게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방안의 하나로 일찍부터 언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새로 제정된 문자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훈민정음’을 관리 등용 시험인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에 포함시키고, 세조는 성균관 유생들의 학습 과정 중 하나로 만드는 등 왕실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은 한자로 쓰인 한문 문헌을 우리글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도달한 듯하다. 아래의 기사는 ‘훈민정음’ 창제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지난날 집현전에서 ‘사서(四書)’를 언문으로 번역하게 했다는 것이어서 유서(儒書)의 언해 계획이 창제 초기부터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집현전(集賢殿)에서 어명을 받들어 언문으로 ‘사서’를 번역하게 하였다.
직제학 김문(金汶)이 이를 맡아 했었으나 ~ (時集賢殿奉校 以諺文譯四書 直提學金汶主之)
〈세종실록 119권 19장, 세종 30년(1448년) 3월 28일 癸丑條〉

세종의 길, 신미의 길

어느 시대에나 책을 만드는 것은 독자들의 요구, 곧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조선 초기의 사대부들은 비록 유서에 익숙한 이들이었다고 해도, 기층 민중들은 여전히 고려조에서 성행했던 불교를 가까이 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우리 문자에 의한 불경 조성의 욕구가 고려조의 구결 불경을 언해 불경으로 바꾸어 나가게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번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역한 원고를 바탕으로 하여 책을 만드는 일 역시 지난(至難)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문자로 된 책을 만드는 일이 시급했다. 한문 불경에 구결을 달아서 읽던 경험을 살려, 한문 구결을 정음 구결로 바꿈으로써 보다 쉽게 경전의 국어역인 불경의 언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구결 불경에서 언해 불경으로의 변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 앞의 기사에서 세종이 언급한 『삼강행실』은 한문본 『삼강행실도』라는 이름으로 1434년에 간행됐었다. 언해본의 경우에는 절행(節行)의 본보기가 되는 인원을 줄이고, 난상(欄上)에 언해를 붙여 1481년에 간행을 하였다. 그런데 사서 등 유교 경서의 언해가 제대로 세상의 빛을 본 것은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훨씬 더 지난 1590년대의 일이다. 어명을 받들어 언해에 착수하고서도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언해본 책으로의 간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번역의 과정과 언해본 책 간행의 일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훈민정음 창제 후 많은 종류의 불경들이 한글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불경의 번역 과정에서 필요한 이는 한문 불경에 조예가 깊은 선지식이면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이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당대의 고승인 신미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훈민정음은 세종의 친제이고, 신미는 훈민정음의 정착 및 확산에 공이 큰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한글을 창제한 업적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글이 있게 만든 공로 역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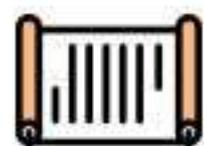
훈민정음 창제의 두 주역, 세종대왕과 신미대사

정광(고려대 명예교수)

한글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대단한 애착을 갖고 있고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매일 한글을 사용하면서 이 문자의 유용함과 편리함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용하는 이 문자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제정하였는지, 그 배경 이론은 무엇인지, 주변 문자와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하여 너무 알려진 것이 없다. 그저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사상 유례가 없는 문자를 독창적으로 만드셨다.”가 한글 창제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이다. 세종을 창힐(蒼鵠)¹⁾과 같은 신으로 생각한 것이다.

한글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제라는 주장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말과 우리글의 연구에서 특별히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한글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문자의 우수함을 자랑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고 있어 이를 자랑하기에 급급할 뿐 한글을 세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든지 다른 문자와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1)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인 황제 때의 좌사.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본떠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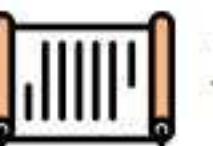
파스파 문자, 고려 말 · 조선 초에 한자음 표음으로 널리 쓰여

그러나 제왕(帝王)인 세종이 혼자서 백성들을 위하여 새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신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글을 문자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신화를 믿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 연구에 기대거나 한류에 편승하려는 일부 외국 연구자를 빼고는 대부분의 한글을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주변 문자와의 관계, 특히 한글보다 170여 년 전에 표음 문자로 만들어진 파스파 문자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글이 파스파 문자를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필자가 보다 못하여 2008년 11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훈민정음 자형(字形)의 독창성”을 발표한 후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좀 잣아들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글과 파스파 문자와의 관계를 모방으로 보려는 연구자들이 없지 않다.

외국의 연구자들만 한글이 파스파 문자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선학들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유희(柳僖)의 「언문지(諺文志)」(1824)의 ‘전자례(全字例)’에서 “諺文雖刲於蒙古, 成於我東, 實世間至妙之物(언문은 비록 몽골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세간에 지극히 오묘한 것이다.)”라고 하여 한글이 몽골의 파스파 문자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같은 책의 ‘초성례(初聲例)’에서는 “我世宗朝命詞臣, 依蒙古字樣, 質問明學士黃瓊以製(우리 세종께서 신하들에게 명하시어 몽골 글자에 의거하고 명의 학사 황찬에게 질문하여 지은 것이다.)”라고 하여 훈민정음이 蒙古字樣(몽고자양), 즉 파스파 문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익(李瀆)의 『성호사설(星湖僕說)』에서 주장한 훈민정음의 몽골 문자 기원설을 추종한 것이다.

실제로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에 파스파 문자는 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한자음의 표음문자였다. 신숙주는 파스파 문자로 한자음을 표음한 〈몽운(蒙韻)〉, 즉 『몽고운략』, 『몽고자운』, 증정 『몽고자운』을 인용하였고 그들의 한자음 연구에 이 〈몽운〉을 이용한 것은 그의 『사성통고』와 이를 전재한 최세진의 『사성통해』를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역관들의 과거인 역과(譯科)에서는 ‘첩아월진(帖兒月眞)’이란 이름의 파스파 문자를 시험하였다. 따라서 파스파 문자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한자음 표음에 편리한 문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훈민정음, 파스파 문자 대신 한자음을 적기 위해 만들어진 것

한글 창제에 대한 또 하나의 관심은 누가 한글을 창제하였는가 하는 문제다. 모두에 말한 대로 ‘영명하신 세종대왕의 창제’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제왕의 일에는 많은 신하들이 참여하여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 별로 연구가 없다.

우선 세종의 주변에서 새 문자의 제정을 도운 이가 유학자들은 아닌 것 같다. 원나라 이후에 북경 주변의 중국 동북 방언으로 발음되는 중국 한자음과 당나라 때의 서북 방언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우리 한자음, 즉 동음(東音)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세종은 같은 한자의 발음이 우리와 중국이 서로 다른 “국지어음(國之語音) 이호중국(異乎中國)”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고심하였다.

그래서 창안한 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새로운 한자음을 정하는 것을 동음으로 한자를 익힌 기성학자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새 문자와 새 한자음의 제정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또 몽골의 원(元)이 한자 문화에 저항하기 위하여 파스파 문자를 제정한 것처럼 조선이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을 명(明)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 따라서 기성 유학자들의 반대와 명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과 일부 젊은 유학자들만을 동원하여 암암리에 창제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에 유배를 온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에게 한자음을 듣고 이를 새로 만든 문자로 적어 오도록 신숙주와 성삼문을 파견한 것으로 보면, 출저 『증정 훈민정음의 사람들』(2019)에서 고찰한 것처럼, 훈민정음의 〈해례본〉 편찬에 관여한 ‘친간명유(親揀名儒)’의 8명이 세종의 가족들과 함께 새 문자 제정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도와서 만든 새 문자는 반절(反切)과 관계가 있다. 반절은 졸고 “반절고(反切考)”(『어문논집』 제81호, 『中國語學 開篇』, 東京: 好文出版, 『國際漢學』, 北京: 外研社)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역(西域)의 역경승(譯經僧)들이 불경을 한역(漢譯)하기 위하여 한자를 학습할 때에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그 발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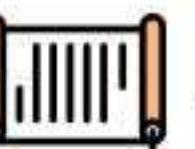
반절은 서역의 역경승들이 자신들의 범자(梵字)를 반자(半字)로 나누어 배운 것처럼 한자도 발음을 2자로 표음하여 배우고자 만든 것이다. 리그베다 경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즉 범어(梵語)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개음절의 언어로서 이를 표기하는 범자(梵字)는 자음+모음으로 된 음절 문자다. 따라서 고대 인도에서 범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각기 반자(半字)로 보아 먼저 이를 교육하는 반자교(半字敎)가 있었다. 반쪽 글자의 교육은 말하자면 알파벳 교육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자를 만자(滿字)라고 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을 만자교(滿字敎)라고 하였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완성된 음절 문자는 실담(悉曇)으로 불린다. 실담은 범어 'sidh-'(완성하다) '에서 온 파생명사로서 '완성된 글자' 즉, 만자(滿字)를 말한다. 알파벳 교육인 반자교와 실담의 교육인 만자교는 여러 불경에서 반만이교(半滿二敎)라고 소개하였는데 모두 범자(梵字)의 문자 교육이다.

이러한 범자의 교육으로부터 역경승들은 한자음도 이러한 반자(半字)와 만자(滿字)의 방법으로 학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한자음은 범어와 달리 음절 구조가 복잡하다. 즉, 자음과 모음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음 다음의 음절 말(coda)에 다른 자음이 결합된다. 따라서 역경승들은 음절 초(onset)의 자음과 나머지(rhyme)로 구분하고 이들의 결합으로 한자음을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한 자음을 첫 자음의 반절상자(反切上字)와 나머지의 반절하자(反切下字)로 구분하여 2자로 표음하였다. 즉, 동녘 동(東)자를 덕(德)의 [t]와 흥(紅)의 [ong]을 결합시켜 ‘덕흥절(德紅切)’의 [tong]으로 발음을 표음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중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반절상자를 성(聲)으로 하고 반절하자를 운(韻)으로 하는 성운학(聲韻學)을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수나라 때의 『절운(切韻)』 이후에 중국의 모든 운서는 이 반절로 한자음을 표음하기에 이른다.

훈민정음으로 불리는 언문(諺文)은 반절로 인식하였다. 즉, 한글의 기역, 니은을 처음으로 보여 준 『훈몽자회』의 「언문자모」에는 부제(副題)로 “반절27자(反切二十七字)”라 하였다. 언문, 즉 훈민정음을 반절로 본 것이다.

또 세조 5년에 간행한 신편 『월인석보』에 첨부된 「세종어제훈민정음」의 협주에 ‘훈민정음’을 “백성 가르치시는 바른 소리”로 풀이하였다. 즉, 임금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한자음이란 뜻이니 세종이 새로 만든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말하는 것이다. 훈민정음이란 새로운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음하는 기호라는 뜻이다.



모음 글자는 신미대사가 만들어

신미대사가 새 문자의 제정에 가담한 것은 초기에 반절상자를 언문 27자로 만든 이후의 일이다. 즉, 한글 제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권103) 세종 25년 12월조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中略] 是謂訓民正音(이 달에 임금이 언문 28자를 친히 만들었으니 …중략…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하다.)”라는 기사다. 그러나 바로 2개월 후인 세종 26년 2월의 최만리 반대 상소에는 “언문 27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홍빈 교수는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국어학논총』, 2006)에서 세종 25년 12월의 기사는 나중에 추가된 기사라고 보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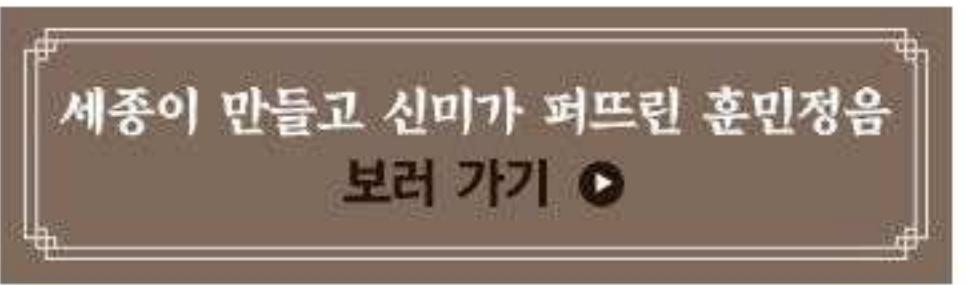
필자는 『증정 훈민정음의 사람들』(2019)에서 세종 25년 12월의 기사는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반절상자의 초성만을 기호로 만든 언문 27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으로 ‘운회’를 번역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 운회는 <고금운회>를 말하며 이 운서로 『몽고운략』을 수정한 『몽고자운』이 있으니 운회의 번역은, 곧 몽운의 번역을 말한 것이다. 몽운의 파스파 문자를 새 기호로 교체하여 한자를 표음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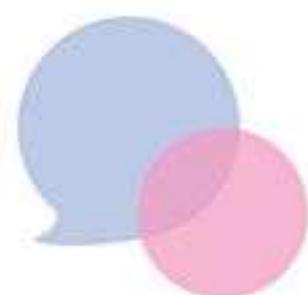
그러다가 범자와 고대 인도에서 발달한 비가라론(毘伽羅論)의 성명기론(聲明記論)을 전공한 신미대사가 이 사업에 참가하면서 범자의 모음자인 마다(摩多)에 이끌려 중성자 11자를 추가하였다. 실담장(悉曇章)²⁾에서 마다는 12자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초성, 중성, 종성이 구비되어 이 문자로 우리말도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신미대사를 세종에게 추천한 것은 효령대군이다. 속리산 복천사에 우거하면서 범자와 성명기론에 정통한 것으로 이름을 날리던 신미를 세종이 수양대군을 보내어 불러 효령대군의 집에서 만난다. 그때는 최만리의 반대 상소로 인하여 세종이 새 문자 제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였다. 세종과 신미의 만남에 대하여는 신미의 동생인 김수온(金守溫)의 『식우집(拭疣集)』(권2) 『복천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세종은 신미의 새 문자에 대한 지식을 인정하여 수양대군과 김수온과 더불어 『증수석가보』를 언해하고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한다. 새 문자로 한자음만 아니라 우리말도 기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것이다. 또 자신도 『월인천강지곡』을 저술하면서 스스로 이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합편한 『월인석보』의 제1권 권두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붙여 간행하여 언문, 즉 우리말을 표기하는 새로운 문자를 공표한다. 한글은 이렇게 제정된 것이다.

2) 싯다마트리카체가 6세기경 중국으로 들어가 변화해 주로 불교 경전을 적는데 쓰이고, 6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한국과 일본에서 쓰였던 실담 문자의 모음과 자음의 표를 이른다.





한글날 573돌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며
안녕! 한글아!

오늘의 발견

한글 탐구생활

반가운 우리말

2019년 10월 8일

The screenshot shows a webpage for '한글 탐구생활' (Hangeul Exploration) on the occasion of Hangeul Day (573rd anniversary). The main title is '한글에 대한 참과 거짓' (Truth and Lie about Hangeul). On the left, there's a vertical logo '한글날 573돌' and a grid of Hangeul characters. On the right, there's a small grid of Hangeul characters at the top right corner.

우리는 매일 한글을 보고 씁니다. 한글과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지요. 그런데 정작 한글에 대해 잘 모르거나, 틀린 내용을 올바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573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봅니다.

하나

한국어와 한글은 같은 뜻이다?

X

한국어와 한글을 혼동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어’는 ‘우리말’을 가리키고,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우리글’입니다. 언론에서 신조어나 줄임말의 과도한 사용 등을 거론하며 ‘한글이 파괴되고 있다’며 걱정하곤 하는데요.

사실 ‘낄끼빠빠’라고 써도 ‘한글’이 망가진 건 아니지요. 하지만 이런 말을 많이 쓰면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어’ 또는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며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로마자’가 ‘영어’를 적는 문자이듯이, ‘한글’은 ‘한국어’를 적는 문자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둘

한글날은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다?

X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되었고,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된 음력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음력 12월의 중간쯤을 양력으로 환산한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이라 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한글’이라 하지 않고 ‘조선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셋

한글은 창제자가 있는 유일한 문자다?

X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세조 때 간행된 ‘월인석보’(1459)의 첫머리에 실린 책이름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지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창제자가 알려진 문자는 한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키릴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동방 정교회의 선교사 ‘성 키릴로스’가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고안한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문자를 창제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중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창제자뿐만 아니라 창제 시기, 창제 목적, 창제 원리가 모두 밝혀진 유일한 문자인 것은 맞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덕분입니다. 이 책은 현존하는 ‘유일한 문자 해설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 책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넷

한글은 원래 띠어쓰기가 없었다?

0

혹시 띠어쓰기가 헷갈려 “도대체 띠어쓰기는 누가 만들었어?”라고 투덜댄 적이 있나요? 하지만 ‘오늘밤나무사온다’처럼 띠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밤나무를 사 온다는 말인지, 오늘밤에 나무를 사 온다는 말인지, 오늘밤에 나씨 성을 가진 무사가 온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띠어쓰기를 잘 해야 의사소통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는 띠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띠어쓰기를 하지 않는 한문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띠어쓰기가 처음 나타납니다. 1877년 영국인 목사 존 로스(John Ross)가 쓴 『조선어 첫걸음』이 최초입니다. 영어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띠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간행물로는 1896년 발행된 『독립신문』에서 띠어쓰기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창간호 사설에서 “모두 언문으로 쓰는 것은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오, 또 구절을 띠어 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다.”라고 한글과 띠어쓰기를 사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띠어쓰기에 관한 규범이 정립이 되어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다섯

한글로 모든 언어를 발음하는 대로 쓸 수 있다?

X

한글은 제자 원리를 응용해서 어느 정도 변형과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적는 데에도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어떤 문자도 모든 언어의 발음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국제 음성 기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가 70개가 넘습니다. 이 소리들을 모두 한글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한글은 다른 나라의 언어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말을 표기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여섯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글자다?

△

한글은 소리가 나는 원리와 규칙을 정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우 과학적인 글자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우수한 특성 때문에 어떤 이는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문자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보다는 ‘과학’에 초점을 맞추어 ‘한글’에 담긴 과학을 자세히 알아보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① 한글은 말소리가 나오는 발음 기관 또는 발음하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ㅁ, ㅅ, ㅇ’은 각각의 소리를 낼 때 사용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ㄱ’은 뒤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앞혀가 윗잇몸을 막는 모양을, ‘ㅁ’은 입을, ‘ㅅ’은 이를, ‘ㅇ’은 목구멍을 본뜬 것입니다. 소리문자에 상형의 원리를 도입해서, 글자만 보아도 소리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우리의 음성학 연구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② 기본자를 바탕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체계적입니다.

한글은 ‘ㄱ-ㅋ’, ‘ㄴ - ㄷ -ㅌ’, ‘ㅁ-ㅂ-ㅍ’, ‘ㅅ-ㅈ-ㅊ’ 등과 같이 같은 계열의 소리는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도 체계성을 띕니다. 가령, ‘ㄷ’은 ‘ㄴ’보다 조금 더 센 소리이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이고, ‘ㅌ’은 ‘ㄷ’보다 더 센 소리이기 때문에 한 획을 더한 것입니다. 모음도 ‘ㅏ, ㅓ, ㅣ’ 기본 3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거나 조합해서 만들어 규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최소의 문자로 기본 글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장시킨 문자여서 간결하고 쓰기 편하며 배우기도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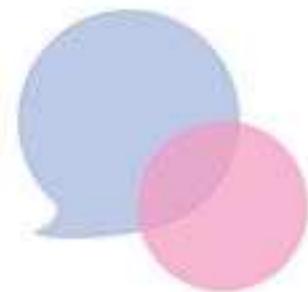
③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옴’에서 첫소리 ‘ㅁ’과 끝소리 ‘ㅁ’이 같은 소리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굳이 받침을 적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었다면 한글의 글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서 배우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④ 한 글자는 하나의 소리로, 한 소리는 하나의 글자로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영어 알파벳(로마자)과 비교해 볼까요? 영어 ‘a’는 [æ], [ɑ] 등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한글의 ‘ㅏ’는 ‘아버지’, ‘아리랑’과 같이 하나의 소리로 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한글 관련 자료실의 [한글의 구성](#), [세계 속의 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날 573돌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며
안녕! 한글아!

오늘의 발견

한글 탐구생활

반가운 우리말

궁금한 우리말

놀라운 우리말

쉬어 가는 우리말

2019년 10월 8일

한글날
573돌

반가운 우리말!

광고의
새로운 재미

언어로부터

한글날 특별호

반가운 우리말!



카피라이터하기도 이젠 어려워졌다

딸에게 물었다.

“댕댕이가 뭐니?”

딸이 대답했다.

“잘 봐.”

뭘 잘 보라는 건가. 나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물었다.

“강아지 이름이니?”

“아니, 강아지를 멍멍이로, 그리고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딸은 제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멍멍이라고 써서 보여 준다. 그리고 그때서야 난 이해했다. 멍멍이 중 ‘ㅁ’의 오른쪽 세로획을 분리하고 모음 ‘ㅏ’와 결합시켜 댕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티브이에서도 자막으로 흔히 나오고, 심지어 광고에도 나오는 말이었다.



갤럭시 노트10의 광고에 보면 ‘댕댕이 엄마’라는 말이 나온다. 강아지를 키우는 한 여성 소비자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강아지 엄마’가 아니라 ‘댕댕이 엄마’이다. 느낌상 강아지보다는 댕댕이가 훨씬 귀엽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광고도 있다. ‘팔도 비빔면’을 아예 ‘팔도 네넴띤’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화면도 아예 유튜브의 재생 화면처럼 만들어 소비자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인터넷 문화 연구자인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말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표현력이 최대로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 소비자들의 표현력이 정말 뛰어나게 발달했다. 그런 소비자를 언어 감각으로 상대해야 한다. 카피라이터로 살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다.



▲갤럭시 노트10 광고 화면



▲팔도 비빔면 광고 화면



서툴고 어색한 자기중심표현으로 시작된 광고 언어

전통적으로 광고는 대중 매체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대중매체는 그 대중성을 기반으로 광고를 수록하게 되었고, 소비자와의 공감을 통한 설득이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에 충실한, 그래서 광고주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광고 언어의 사용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는 1886년 2월 22일자 『한성주보』에 게재된 세창양행의 광고이다. 그림은 없고 순 한문 세로쓰기만 구성된 광고이다. 그러니까 이 광고는 광고 언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한글이 광고 언어로 사용된 것은 『독립신문』이 창간되면서부터이다. 1896년 4월 7일에 창간호를 선보인 『독립신문』은 창간호부터 한글과 영문으로 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고살기 회사는 『독립신문』의 초창기 대표적인 광고주로,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문 광고와 국문 광고를 함께 게재하기도 하고, 별도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세창양행 신문 광고

| A. GORSCHALKI. Chong Dong, Seoul. | |
|--|----------------|
| I have just received a new consignment of European and American goods. | |
| Malgas raisins | Per lb. ₩ .40 |
| Pudding mixture | " " ₩ .25 |
| Cornmeal | " " ₩ .12 |
| Newly Roasted Moka Coffee per lb. | ₩ .75 |
| Java Coffee | " ₩ .70 |
| Bacon Caviare | per lb. ₩ 1.75 |
| Smoked Salmon | " ₩ .50 |
| Crab Jam | per can ₩ .50 |
| Blackberry Jam | " ₩ .35 |
| Russian Salt Salmon | per lb. ₩ .25 |
| Japanese Coal is expected in a week. | |
| Price (best quality) ₩12 per ton. Second class ₩11. | |
| FLOUR, GINGER, STEVIA, OLIVES, etc. | |

▲고살기 회사 신문 광고



▲진로 극장 광고 화면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농심라면

▲농심라면 광고 음악 가사

1959년에는 진로가 최초의 광고 음악을 선보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진로의 극장 광고에 당시에 유행하던 차차차 리듬의 광고 음악이 더해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광고 음악의 활용이 매우 빈번해졌는데, 1978년 농심라면 광고 음악에 담겨 있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표현은 광고가 만든 최초의 사회적 유행어로 꼽히고 있다.



공감과 설득을 위한 다양한 시도 - 1980~1990년대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광고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그만큼 광고 자체가 사회적인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쌍용그룹 신문 광고



▲유한킴벌리 신문 광고



▲게보린 신문광고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쌍용그룹에서 게재하였던 광고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 제자에게 속이 불편하다며 도시락을 내주신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이 광고는 가난하던 시절 마음만은 따뜻했던 학교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명작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우리나라 광고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광고 캠페인 문구이다. “맞다, 게보린!”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상품명을 반복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인식시켜 광고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이다.

그 밖에도 나이키는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제품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광고 문법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광고로 접근 방법을 바꾸었다.



▲에巴斯 화장품 신문 광고



▲에이스 침대 텔레비전 광고



▲경동보일러 텔레비전 광고

1990년대에는 광고 언어의 전략적 접근 방향이 매우 다양해졌다. 에巴斯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화장을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콕 짚어 내어 호평을 받았다. 초등학생들이 시험에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에 ‘침대’라고 답하게 하였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에이스 침대 광고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침대 광고와는 달리, ‘과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침대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동 보일러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이 담긴 문구로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 밖에도 소비자들의 삶과 밀접한 감성적 표현으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낸 표현들도 많았다. “사람들이 좋다, OB가 좋다.”처럼 제품이 연상시키는 술자리의 사교적인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바꾼 표현도 있었으며, 제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마몽드 화장품의 “산소 같은 여자”, 정신대를 소재로 국산 제품의 사용을 호소하였던 프로스펙스의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등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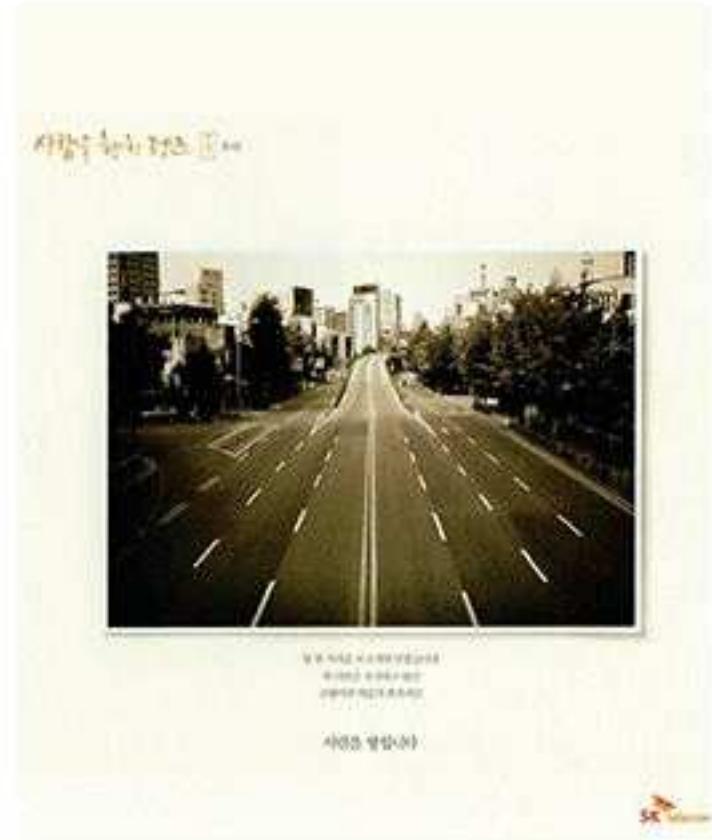


광고 언어에서 느껴지는 사회 변화의 조짐 - 1990년대 말~200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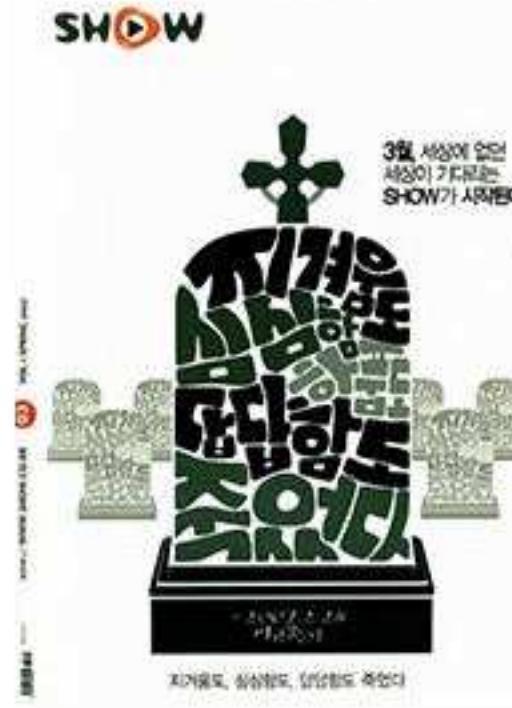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광고에서의 언어 표현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왔다.



▲캐논 신문 광고



▲SK텔레콤 신문 광고



▲Show 신문 광고

캐논 신문 광고에서는 카메라가 우리의 삶에서 왜 가치 있는지를 묵직한 표현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다.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극히 당연한 속성이긴 하지만, 사진을 찍는다는 것,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쉽게 찍는 것과는 달리 카메라는 도구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응변하는 듯하다. SK텔레콤은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포제를 사용한 광고를 수십 편을 만들어 게재하였다. 휴대전화라는 첨단 기술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사진과 더불어 잘 보여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Show의 신문 광고는 소비자가 문구에 더 집중하도록 언어 표현을 시각화한 시도가 돋보인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소위 ‘닷컴 광고’라고 불리는 서비스 광고들도 함께 늘어났다. 이 서비스들은 인터넷의 주사용자였던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일반 제품 광고들에 비해 기발한 것을 볼 수 있다.

야후의 광고에서는 야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거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바지 지퍼를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이 재미를 유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 피망의 광고에서는 얼핏 보면 야구공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 위에 쓰인 “쳐라!”라는 문구는 그 그림을 더욱 야구공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야구공의 박음선처럼 보이는 것이 화투장의 뒷면임을 알 수 있다. ‘친다’는 것이 야구공이 아니라 화투임을 은근하게 알리며 이중적인 묘미를 자아내고 있다. 쥬크온 광고에서는 “^^”에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모티콘이 광고에 등장한 것이 당시로서는 젊은층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그 밖에도, 광고에서 전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내용보다 광고에 삽입된 대사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광고도 있었다. 모델이 휴대 전화에 남긴 “잘 자, 내 꿈 꿔!”로 유명해진 n016(현 KT) 광고나, “니들이 게 맛을 알아?”라는 도전적인 말 한마디로 유명해진 롯데 리아 크랩버거 광고, 등이 그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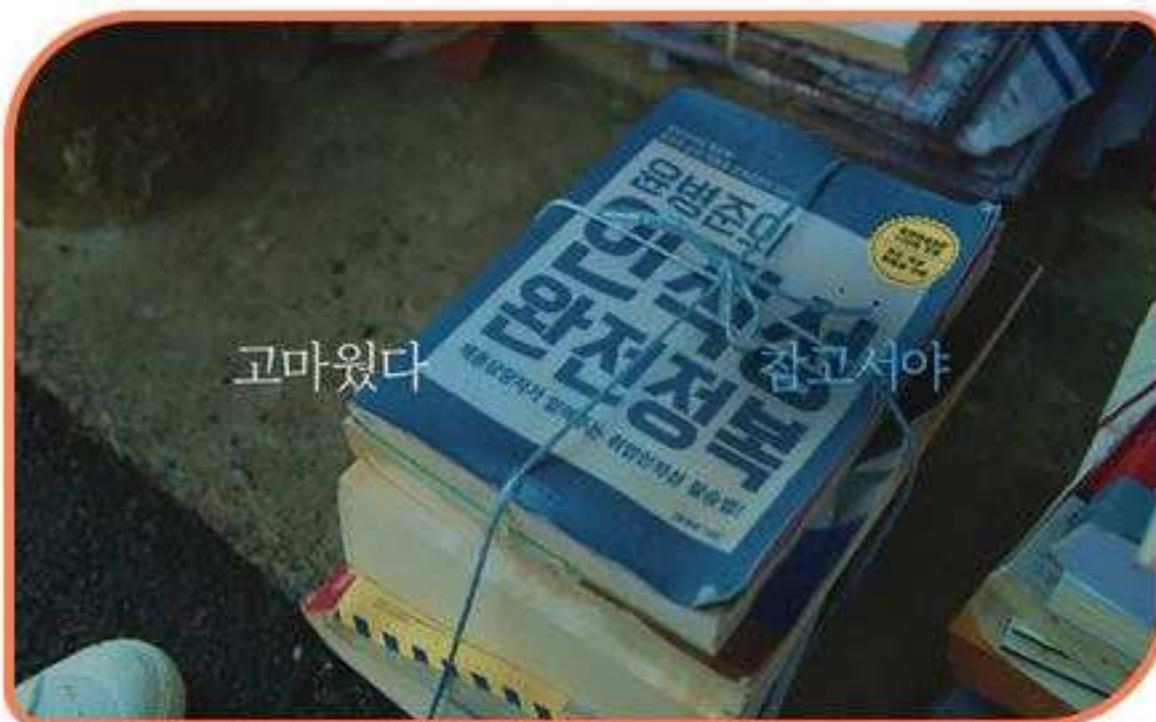


지금, 광고 언어는 분투 중 - 건투를 빈다!

지금도 여전히 광고 언어는 카피라이터들의 탁월한 표현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고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언어유희가 아닌 정공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맥심 텔레비전 광고



▲잡코리아 텔레비전 광고

맥심 광고에서 사용된 문구는 “커피라는 행복”이다. 대단히 창의적인 표현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떠한 언어유희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통해 소비자들은 내 삶에서 커피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잡코리아 광고에서는 입사 준비용 참고서를 버리면서 “고마웠다, 참고서야.”가,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잡코리아 앱을 지우면서 “고마웠다, 잡코리아.”라는 문구가 사용된다. 취업준비생들의 꿈을 잡코리아가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인 표현력을 보여 주고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공법 이외에도 새롭고 참신한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롯데면세점 광고 화면



▲롯데렌터카 광고 화면

롯데면세점 광고를 보자. 인기 있는 걸 그룹을 배경으로 ‘L, D, F’라는 알파벳이 보인다. Lotte Duty Free의 머리글자이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는 이것을 ‘남’이라고 읽는다. 모양을 보면 한글 ‘남’자와 비슷하기도 하다. 롯데렌터카 광고에서는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롯데렌터카의 신차 장기 렌터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델이 한글 ‘뜸’을 엉덩이로 밀어 옆으로 넘어뜨린다. 그러면 그것이 ‘DIRECT’로 변한다. ‘DIR’을 한글 ‘뜸’으로 읽은 것이다.



▲SSG마트



▲베뉴

‘쓱세권’이란 말은 무엇일까? 아파트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던 ‘역세권’에서 시작해 ‘쓱세권’까지 왔다. 광고주인 신세계의 머리글자를 딴 SSG를 ‘쓱’으로 읽는 광고에서 시작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되는 새벽배송을 광고하면서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쓱세권’이라 부르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베뉴 광고에서는 ‘혼라이프’가 등장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많이 사용된 ‘혼술’, ‘혼밥’을 응용한 신조어이다.



▲MG새마을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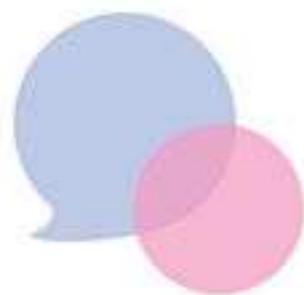
▲오로나민-C

MG새마을금고 광고를 보자. 화면 속에는 ‘예금적금 키워줘야 MG’라고 써 있다. 내레이션에서는 이를 ‘예금적금 키워 줘야 맞지.’라고 읽는다. 기업명 중 MG를 부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예금과 적금을 키우기에 적절한 금융 상품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로나민-C는 화면에 있는 그대로 ‘낚시, PC, 입시, 맵시’를 읽어 주고 바로 ‘오로나민-C’와 연결시킨다. 오로나민-C가 필요한 상황들을 보여 주면서 각운법을 통해 제품명을 부각하는 것이다.

광고 언어 제작자들은 지금 역사상 최대의 표현력을 가진 소비자들과 분투 중이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감각적인 표현들과 표현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어긋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광고 언어는 언어의 쓰임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광고는 언어를 통해 어떤 재미를 만들어 갈 것인가. 광고 언어 창작자들의 분투를 응원하며, 그들이 만들어낼 재미를 기대해 본다.

글: 김정우(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교수)

사진: 각 광고 화면 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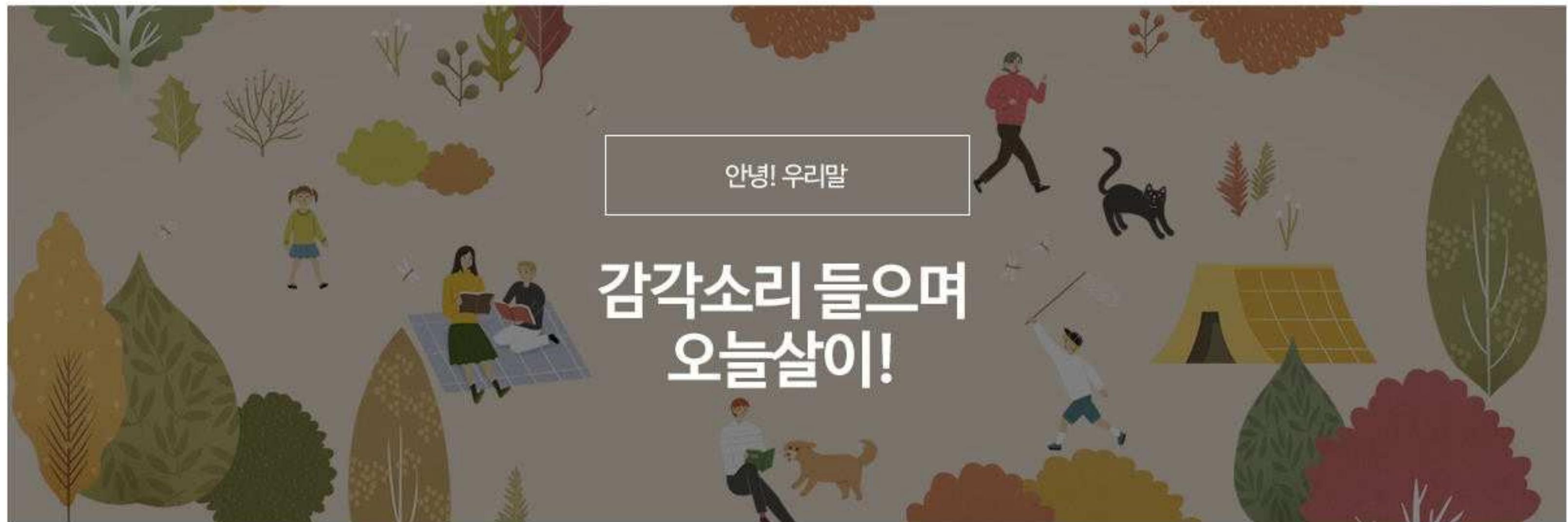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10월 22일



▶ 궁금한 우리말 ▶ 안녕! 우리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좀 더 세련되고 수용도가 높은 우리말을 찾고, 만들어 보고자 올 9월부터 ‘새말모임’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말모임’에서는 지난 9월 26일 에이에스엠아르(ASMR), 율로(YOLO),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대신할 말을 공모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모받은 제안어들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각각 ‘감각소리/귀안마/심리충전음’, ‘바로족/오늘살이/오사인(오늘을 사는 인생)’, ‘반짝패션/빠른패션/한철의류’로 추렸습니다. 위 제안어들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86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에이에스엠아르의 다듬은 말로 감각소리(총 846표), 율로의 다듬은 말로 오늘살이(총 724표), 패스트 패션의 다듬은 말로 반짝패션(총 556표)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다듬은 말을 제안한 수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으뜸상

조영미(감각소리)



베금상

박서연(오늘살이), 신리사(반짝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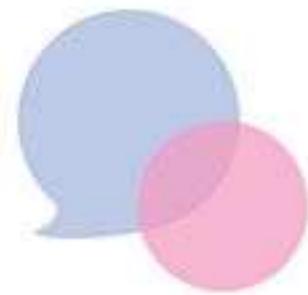
알참상

이규승(한철의류), 남종환(빠른패션), 송재현(바로족),
장윤미(오사인), 조영미(심리충전음), 유수민(귀안마)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를 대신할 쉽고 편한 우리말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말모임 선호도 조사’ 당첨자는 아래 단추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당첨자 확인하러 가기](#)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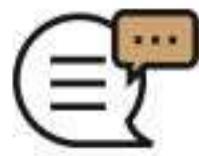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 궁금한 우리말 ▶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소강춘 원장님을 뵙기 위해 방화동에 있는 국립국어원에 갔습니다. 원장님은 필자가 공부한 대학의 대선배님입니다. 북한어 사업, 방언 사업 등을 함께 하면서 이끌어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별 좋은 가을날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은 가끔 있는 여행길 같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 앉아서 듣는 원장님의 말씀은 더 큰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라져 가는 방언과 어린 국문학도의 바람

이진병: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장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핵심어는 ‘방언’, ‘말뭉치 언어학’, ‘북한어’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따라서 하나씩 말씀을 여쭐까 합니다. 먼저 어떻게 방언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소강춘: 문법이란 것이 재미있어서 대학 1학년 때 전광현 선생님께 “문법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 웃으시더니 책 한 권을 주시면서 읽어 보고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읽어 보고 갔더니 뭐가 재밌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음운론이 재미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전광현 선생님께서 음운론을 공부하고 싶으면 당신 방에 와 있으라고 하셔서 1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선생님 방에서 공부했어요.

이진병: 학부 1학년 때 벌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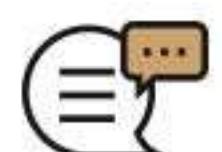
소강춘: 네.(웃음) 학부 1학년 때는 문학에 빠졌어야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문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음운론을 공부했어요. 4학년이 돼서 논문을 써야 했는데, 그때는 지역어를 조사해서 음운 체계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내 고향이 남원이라 남원 지역어에 자신이 있었죠. 남원 고향 말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음운론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재미 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음운론 논문도 쓰고, 대학 4년 동안 음운론만 해서 내가 꼭 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군 제대 후에 석사 논문을 쓰려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학부 때와 전문가로서 입문하는 석사 과정 논문을 쓰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그래서 방언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진병: 석사 논문을 거의 학부 때부터 준비하신 거네요? (웃음)

소강춘: 그런 셈이죠. 나는 학부 때부터 국어학회를 다녔는데, 다들 내가 대학원생인 줄 알았대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는 학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가 박사 과정쯤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웃음)
대학 졸업 후에는 내 방에 있던 문학책을 친구들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양 국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교양 국어는 다 문학이잖아요. 그때 친구들에게 줘 버린 그 책들을 모조리 샀어요. 강의를 해야 하니 다시 공부했지요. 공부를 잘못 한 것 같아요, 하하. 학부 때 문법만 하지 말고 좀 폭넓게 공부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이진병: 그만큼 국어나 방언에 대한 철학, 신념이 뚜렷하셨던 것 아닐까요?

소강춘: 글쎄요. 거창하게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점점 방언이 사라져 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동네 사람들이 쓰던 말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남겨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사한 자료들을 어떻게든 잘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들도 있고. 언제 정리할까 싶기도 하죠.(웃음)



퇴직금과 바꾼 컴퓨터, 깜짝새의 날갯짓

이진병: 조사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자료를 말뭉치로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일 텐데요, 혹시 그래서 말뭉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소강춘: 김병선 선생님(한국학중앙연구원)이 친한 대학 동기인데요, 제게 논문을 쓸 때 컴퓨터로 쓰면 자료 정리도 잘되고 편할 것이라고 추천했어요. 그 말을 듣고 워드 프로세서 겸용으로 된 컴퓨터에 입문한 것이 1983년 즈음이에요. 당시에는 컴퓨터가 무척 비쌌어요. 그때 제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일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에이티(AT) 컴퓨터 한 세트와 인쇄기 한 대를 샀어요. 아내한테도 이렇게 하면, 논문을 잘 쓸 수 있다고 말했죠. 퇴직금을 몽땅 투자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연봉으로 컴퓨터 한 세트를 산 셈이에요. 그 뒤에 ‘21세기 세종계획’이 이뤄지고 말뭉치 구축하는 일을 쭉 했는데요, 국어학자로서 예외를 검색해서 찾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결론은, 자료가 너무 많이 구축되니까 막상 논문을 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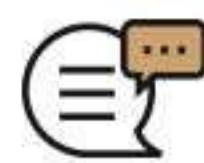
이진병: 그래서 깜짝새를 개발하셨나요?

소강춘: 네. 자료를 정리하느라 깜짝새(한글 말뭉치 분석 프로그램)를 만들었죠. 음절 단위, 초·중·종성, 자소 검색이 다 가능한 검색 도구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깜짝새를 개발했어요. 제가 논문을 쓰는데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요. 깜짝새는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죠?

이진병: 맞습니다. 다른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강춘: 그렇죠. 그런데 깜짝새를 활용했다는 말은 논문에 안 쓰더라고요. 만일 논문에 잘 활용했다고 써주면 개발자들이 꾸준히 더 잘 개발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가……. 공학도나 통계학도들은 논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썼다고 꼭 밝히는 반면, 국어학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말, 하나 되기에 앞서 함께해야

이진병: 이제 마지막 핵심어가 남았습니다. 바로 북한어인데요,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보면 전주에 계셨으니까 북한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북한어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소강춘: 1994년에 남한, 북한,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 연길에 모이는 학술 대회가 열렸어요. 김병선 선생이 저보고 그 학술 대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참석하게 됐죠. 그때 우리가 가져간 안에는 ‘한글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대회’라고 썼어요. 그런데 첫 회의를 하는데 북한 학자들의 첫마디가 왜 ‘한글’이냐는 거예요. 중국 대표는 ‘우리글’이라고 하면 곧 ‘한자’라는 뜻이라면서 반대했죠.(웃음) 결국 ‘한글’, ‘우리글’ 모두 쓸 수 없어서 ‘코리안(Korean)’이라는 영어를 썼어요. 국제적인 자리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서 참 서글프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은 한글 자모 순서와 명칭이 다르고, 컴퓨터 용어도 다르니까, 네 개의 분과를 만들어 명칭과 용어들을 통일하자고 해서 분과를 만들었어요. 나는 자모를 맡는 소분과였어요. 각자 연구해서 다음 해에 두 번째로 모였어요. 저는 합의문 기록을 담당했어요. 사실 우리는 합의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요. 그때 남한의 흥윤표, 북한의 문영호, 중국의 최희수 대표가 모두 42년생이었어요. 42년생들이 사이좋게 합의 잘하자고 박수 치고 모였죠. 합의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15분 만에 자모순을 합의했어요. 서로가 양보하니까 되더라고요.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은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논의했어요. 어떤 규범을 남북 대표들이 합의해서 바꾸긴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은 있으니까 북한 따로 우리 따로 각자 고치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에 1996년에는 제가 옌볜과학기술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어요. 사전 작업 때문에 실무적인 역할을 할 누군가가 중국에 있는 것이 편했어요.

이진병: 그럼 파견되신 건가요?

소강춘: 그건 아니고, 누군가 갔으면 했는데 제가 자원해서 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많이 희생했지요. 또 하나 목적이 더 있었는데, 바로 북한어 조사를 위해서였어요.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쭉 따라 가면서 방언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회령 지방 맞은편에 노령이란 지방이 있어요. 강폭이 20미터 정도 될까? 수심도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얕은 물이고요.

양쪽 동네 사람들이 한 들판을 사용하고 강을 왔다 갔다 건너서 오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탈북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탈북을 막으려고 초소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북한과 왕래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지요.

이진병: 남한어와 북한어의 미래상을 그려 보신다면 어떠할까요?

소강춘: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국립국어원장으로 왔을 때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보화 사업을 잘해야겠다.’, ‘지역 언어 자원을 잘 보존해야겠다.’, ‘남북 언어 교류를 활성화해야겠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왔어요. 그간 제가 중점적으로 해온 일들이기도 해요. 지난 1년간 남북 교류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긴 했어요. 이번에 남북 학술 교류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통일’이란 말을 약간 접하고, ‘통합’을 해 보자 싶어요. 올 12월에 남북 언어 통합 방안 국제학술대회를 하려고 해요. 남북한의 용어부터 통합을 하고 싶어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담아낼 수 있거든요.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작업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 싶어요.

이진병: 역대 국립국어원장님들 중에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국립국어원장을 지내신 분이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무척 가정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말부부로 지내시죠? 사모님께서는 불만이 없으신가요?

소강춘: 아내가 불만이 많죠.(웃음) 주말에 만나는 것을 서로 기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주말부부 하기가 힘들어요. 시골 단독 주택에 살다 보니 잔손 갈 일이나 힘이 필요한 일이 많은데 제가 잘 못해 주니까 아내가 힘들어하죠. 주말마다 내려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립국어원장으로 일하게 해 줘서 아내에게 정말 고맙죠.

이진병: 가족의 희생이 있어서 그만큼 더 큰 일을 해 주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전주에서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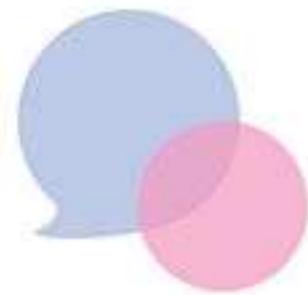
〈끝〉

글: 이진병(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 강사)

사진: 김장현

때: 2019년 10월 10일

곳: 서울시 방화동 국립국어원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 놀라운 우리말 ▶ 찰나의 우리말



지난해 말,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을 낸 덕분에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이 객원 기자의 자격으로 사진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싶다면 필자의 연구실을 찾았다. 책의 서평을 다른 매체에 기고도 했고 친분도 있는 사이여서 인터뷰는 내내 즐겁고 유쾌했다.

시간이 지나 잡지가 나올 즈음, 사진 기자가 문자를 보내 주었다. “인터뷰 기사가 곧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기사를 보내 준 것이다. 그런데 보내 준 기사를 읽고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글을 읽기가 무섭게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 기사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기자는 난감해 하며 이미 윤전기가 돌고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필자가 한 말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국어’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 ‘한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꼭 고쳤으면 한다고 답했다. 물론, ‘이미 늦은 것 같으니 어쩔 수는 없겠지만….’이라는 체념 섞인 말과 함께.

기자는 처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잠깐의 설명을 들은 후 화들짝 놀라며 자신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부끄럽다고 했다. 지면으로 나간 것은 인쇄 중이라 고칠 수가 없지만, 온라인판에는 내용을 수정하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자신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책 아닌 자책을 했다.

기자의 혼동 덕분에 필자는 ‘한글’과 ‘한국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어학자가 되었다. 강의 시간 중에 종종 학생들에게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자주 강조하던 사람이 말이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필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호의 표지 모델이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 명이었던 탓에 잡지는 이례적인 부수의 추가 인쇄에 들어갔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갔다고 한다.



한글날, 세종대왕은 지하에서 통곡하실까?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일은 비단 그 기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글날 관련 보도를 보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기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전문가가 기고한 칼럼에서조차도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로 둔갑한다. 심지어 이 둘을 혼동한 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 역시 심심치 않게 만나기도 한다.

또, 한글날 즈음이면 자주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만들어 준 우리말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 “외래어, 신조어, 유행어, 외계어 등이 범람하는 세태를 보고 한글날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통곡을 할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익숙하게 들어 왔던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혼동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헛 웃음이 날 것이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다. 세종대왕 이전부터 한국어가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건만, 한글을 한국어와 혼동한 결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글날 세종대왕은 지하에서 절대 통곡할 리가 없다. 통곡하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만든 문자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기리며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세종대왕은 한글날 지하에서 웃고 계실 것이다. 또, 외래어, 신조어, 유행어, 외계어 등은 한글 파괴범이 아니다.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언어적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한글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 한글날에도 ‘한글’과 ‘한국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사와 보도를 여럿 보고 들었다. 심지어 한글날을 기념해 열린 한 행사의 인사말에서도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었다. 한글날마다 듣게 되는 상투적이고 표피적인 ‘한글’ 찬양, 그리고 이날 전파를 타고 퍼지는 ‘한글’과 ‘한국어’의 혼동은 한국어를 연구하는 필자의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어디 한글날뿐인가? 우리는 ‘영문 홈페이지’에 대응하는 명칭이 ‘한글 홈페이지’인 경우를 일상적으로 목격한다.

거리마다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소위 ATM기)의 화면에서도 우리는 ‘한국어’ 안내 대신 ‘한글’ 안내를 만난다. 또한, 외국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글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권 사용자들에게 ‘영어’ 안내가 필요하다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한국어’ 안내가 필요하다. 영어가 로마자를 문자로 사용한다고 영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안내를 ‘로마자’ 안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어가 한글을 문자로 사용한다고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안내를 ‘한글’ 안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로마자화’가 아닌 것처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한글화’가 아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문자와 언어의 혼동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금방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는 자주 ‘한글 이름’, ‘한글 단어’와 같은 표현을 만나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한글 이름’ 혹은 ‘한글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로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한국 사람의 이름은 모두 한글로 쓸 수 있고, 한국어의 단어들은 당연히 한글로 쓸 수 있으니 말이다. 한글 이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대응되는 한자가 없는 고유어 이름이고, 한글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단어의 기원이 한자어나 외래어처럼 외래의 것이 아니라 한국어 본래의 것인 고유어이다. 그러니 한글 이름과 한글 단어는 각각 고유어 이름과 고유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게 된 배경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게 되었을까?

일제 강점기 동안 ‘한글’은 우리 고유의 글자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한글’은 ‘우리의 글자’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의 이러한 상징성은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을 ‘한글 학자’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 한글 학자들의 모임은 ‘한글 학회’가 되었고, 그 학회가 펴내는 학술 잡지는 《한글》이 되었다. 이 시기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적는 고유한 문자에 대한 이름이 아니었다. 문자의 이름 그 이상의 엄청난 상징성을 지닌 명칭이 된 것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어 학교가 ‘한글 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글

제80권 제3호(동권 제325호) ■ 2019. 가을

- 465 김태인 … ‘-은/는’이 결합하는 일부 한국어 부사어의
정보 구조에 대하여
- 501 김선희 …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에 대한 재고
- 531 엄태경 · 신중진 … 개념 조화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새로운 도색
- 561 하빛나 … 학습자의 국어 인식 확장을 위한 중세국어
문법교육 내용 연구: 현대국어 ‘-었-’과
중세국어 ‘-어 잇-’을 중심으로
- 595 김가람 … 한국어교육학 연구에서 ‘근거 이론 연구
방법론’의 동향 분석
- 627 투예이 수 흘랑 …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상대 높임
표현 비교 연구—비격식체를 중심으로—
- 659 한용운 … 현대 국어사전의 편찬 목적과 그 특징
—『큰사전』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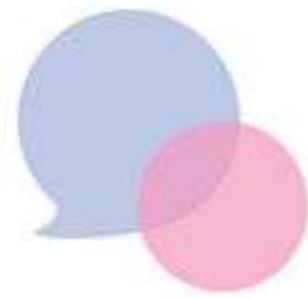
한글 학회

▲한글 학회의 학술 잡지 «한글» 표지

일제 강점기 ‘한글’을 지키고자 노력한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말글살이는 잘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문자인 ‘한글’과 언어인 ‘한국어’를 혼동하게 만들었고 ‘한글’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기반한 이해보다는 독단적인 신념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글 지킴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글은 이미 우리 선조들에 의해 지켜졌으니 지킴이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한글로 적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글의 사용을 탄압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우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는 지키는 대상이 아니라 가꾸는 대상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 쉬어가는 우리말 ▶ 우리말의 재구성

우리말의 재구성

거리 공연



한밤에 재즈 **거리 공연**이라니,
운치 있는걸?

우리 탈춤 동아리도 이렇게
거리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





거리마다 흥겨운 기운을 퍼뜨리는

거리 공연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묘미입니다.



거리 공연

‘버스킹’을 다듬은 말로
‘길거리에서 열리는 공연’을 뜻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이 가을에
어려운 외래어보다 쉽고 편한 우리말로
소중한 사람과 노래하듯
즐거운 대화를 나눠 보세요!

